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10/05~2026/10/11]

2026.10.12

[로봇] BD의 새로운 수장

- 보스턴다이내믹스 CEO 신규 선임. 로봇 기술 상용화를 염두한 인사
- 필드AI 기업 가치 100억달러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들 기업가치 폭증 랠리
- 일본 파나소닉도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한 발 늦은 일본도 대기업을 참전

[방산] AUSA 프리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MH 3대 추가 계약. 미국 궤도형 자주포 참여도 선언
- 폴란드 K2PL 조립이 2028년 8월에서 2028년 4월로 4개월 앞당겨질 예정
- 록히드마틴, 저가형 ACE에 이어 이번에는 극초음속미사일 갑는 패트리엇즈 엣지 발표

[조선] 쉽지 않은 군함 수출

- HD현대중공업 입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한화오션도 협상 난항 계속.
- 바르질라, 미국 데이터센터항 282MW 중속엔진 수주. 미국서 7번째 DC항 수주 달성.
- HD현대마린솔루션, 엔진 MRO 골텐스 지분 인수. 엔진 정비 역량 강화

[항공] 9월 항공 데이터

- 진에어 해외 기업결합 심사 완료, 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출범 속도
-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위기 넘겨,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 9월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 4분기 성수기 앞두고 소폭 상승

[해운] 컨테이너 피크

- 팬오션, 1,482억원 장기계약으로 에너지 수송 다변화. VLCC 확대 효과 본격화
- SM 대한해운, 포스코플로우와 720억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 LA항 9월 물동량 사상 최대, 4개월 연속 기록 행진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BD의 새로운 수장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새로운 CEO가 선임됨. 작년부터 주요 인력이 대거 교체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목할만한 움직임. 이번 CEO는 연구자의 성격보다는 제품 상용화 성공 레코드를 지닌 인물.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3)

[BD의 새로운 수장]

- Boston Dynamics는 2025년 말부터 연구개발 중심의 리더십에서 AI-양산-상용화 중심의 경영진으로 빠르게 재편 중.
- 이번 Rohit Prasad CEO 선임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로 판단. Prasad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자라기보다 Amazon에서 Alexa와 Nova Foundation Model을 이끌며 AI 기술을 대규모 상용 서비스로 전환한 경험을 가진 인물임 Atlas를 연구용 휴머노이드에서 실제 제조현장에 투입되는 양산형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제품화-상용화 전문가를 CEO로 영입했다는 점이 중요.
- 결국 Boston Dynamics의 무게중심은 기존의 '로봇을 얼마나 잘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에서 'AI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학습시키고, 이를 얼마나 빠르게 양산-배치할 것인가'로 이동. 핵심 연구인력과 운영-상용화 책임자들이 다수 이탈했다는 점은 리스크. 향후에는 AI를 이끌 연구수장, 대량생산과 공급망을 담당할 제조 책임자, Atlas의 외부 판매를 담당할 Commercial 리더십을 어떤 인물로 채우는지가 중요함.

Key Chart: BD의 주요 인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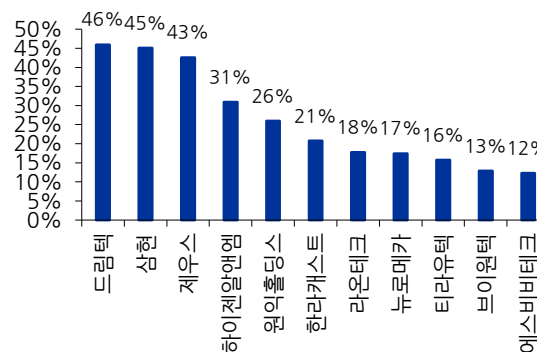
시점	인물/직책	변화
2025.11	Aaron Saunders / CTO	구글 딥마인드 이직
2026.1	Scott Kuindersma / VP Robotics Research	구글 딥마인드 이직
2026.2	Robert Player / CEO	퇴임
2026.상반기	Selma Svendsen / COO	퇴사
2026.5	Marc Theermann / CSO	퇴사
2026.6 이전	Zachary Jackowski / Chief Product & Technology Officer	역할 부상
2026.8	Rachel Salamone / Chief People Officer	퇴사
2026.10.7	Rohit Prasad / CEO	신규 선임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W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0/05~10/11)

[전통 로봇]

- 두산로보틱스, 피지컬 AI 국책과제 2건 수주

[휴머노이드]

-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부품/SW/기타]

- 삼성SDS, 레인보우 로봇에 미라콤 SW 탑재
- 투모로로보틱스, 로봇 AI '하빌리스 브레인 0' 공개
- LG전자, 베어로보틱스 美 상장 한달째 '미정'
- 세아베스틸, 로봇 감속기용 특수강 양산
- 삼현, 로보월드서 액추에이터-4족보행로봇 공개

[글로벌]

-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마존 전 임원을 CEO로 임명
- 메디슨 황, 11월 방한.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참석
- 테슬라, 옵티머스 3차원 촉각 센서 특허 출원
- 레이버트 소장 "로봇, 꼭 사람처럼 생길 필요 없어"
- WSJ "테슬라와 로봇 경쟁하는 회사는 현대차"
-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 日 맥주공장 투입
- 엔비디아, 피규어AI에 10억달러를 추가 투자 논의
- 필드AI, 7억달러 투자 유치 추진. 기업가치 100억달러
- 아마존, 美 인디애나 새 제조공장에 1억달러 투자
- WSJ, 월마트 물류자동화 '시행착오' 조명
- 인텔, 中현지 기업 손잡고 '로봇 개발키트' 출시
- 日 파나소닉HD, 2029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中 국가로봇평가센터, '지능형 로봇 성능 평가' 본격화
- BYD, 첫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특허 전격 공개



Weekly Keyword

AUSA 프리뷰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이번 주 미국에서 최대 육군 전시회 AUSA가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 속, 자주포 사업 및 자주포 주변 사업 관련 내용 구체화, 미국 추진체 사업 진출 가능성 등 주목.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91)

[AUSA 프리뷰]

- 10월 12일부터 미국에서 AUSA가 개최될 예정. 한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이 참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K-9MH 실물을 전시할 계획. 한화USA 경영진이 AUSA 직전 기자들에게 미 육군의 tracked howitzer 경쟁에 반드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MTC-T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도 기대. 자주포 사업을 중심으로 (1) 장약 공장 투자 구체화 (2) 자주포 미국 현지 생산 계획 구체화 여부 주목.
- AReS 고체로켓 부스터 협력도 체크포인트. 한화는 Northrop Grumman과 올해 4월 미군용 장거리 타격체계 Advanced Reactive Strike(AReS)의 1단 고체로켓 부스터 공동개발 MOA를 체결한 상태. AUSA에서 포병 플랫폼 외에 미사일 추진체-장거리 정밀타격 영역까지 미국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주목해볼만함.

Key Chart: AUSA 한화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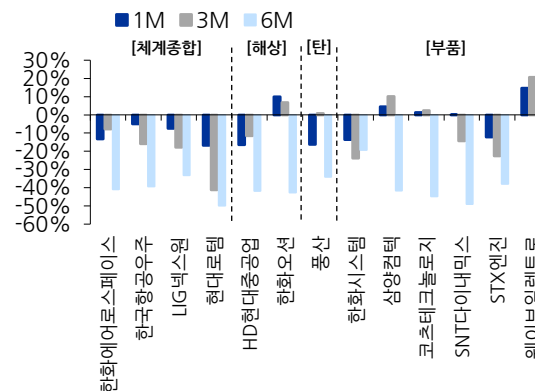
구분	내용	현재 상태
확정	K9MH 실물 전시	확정
확정	미 육군 MTC-T 참여	K9A1 또는 K9A2 제안 공식화
높은 관심	미국 장약 공장 구체화	구체화 여부 주목
높은 관심	미국 현지생산-공급망 확대 계획	구체화 여부 주목
체크	MTC-W 추가 9대 옵션/시험 일정	추가 발표 가능성
체크	K9A2 미국형 구체 사양	아직 예고 없음
체크	천무 미국 사업/미국형 모델	아직 예고 없음
체크	AReS 추진체-미사일 협력	기존 MOA 후속 여부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10/05~10/11)

[수주/계약]

- KAI,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1,145억 규모 PBL 착수
- 스위스 방공망 수주 밀려난 L-SAM

[기업별 이슈]

- 한화, 미국 궤도형 자주포 교체 사업에도 공식 출사표
- K9 자주포, 운용국 30개국으로 확대 목표
-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초소형 위성 5기 동시 투입
- 美 육군, K9MH 시제 6대 이어 3대 추가 계약
- 美 육군 획득 책임자, 한화 방산 역량 확인
- 한화, 美 자주포 트럭용 새시 체코 최대기업서 받아
- 폴란드 "美 하이마스 팔고 한국 천무에 집중하자"
- UAE, 패트리엇-천궁 묶는 통합 지휘망 요구
- 말레이, 차세대 대함미사일 UG 해상-MBDA 등 3파전
- KAI, 모로코 에어쇼 첫 참가. FA-50 수출 마케팅
- 폴란드, KAI FA-50 '전투태세' 선언
- 현대로템 K2PL 현지생산 '4개월' 앞당긴다
- 현대로템, 폴란드서 'K2 파트너스 데이' 개최
- 현대위아, 칠레 육군 프로젝트 비밀회동

[기타]

- 이집트 대통령 10년 만에 국민방한

[글로벌]

- 극초음속 잡는 패트리엇, 록히드마틴 PAC-3 엠티 공개
- 보잉, 147억 달러 규모 PAC-3 입찰 계약 수주
- 미 육군, 에피루스 레오니다스 드론 방어망에 통합
- 독일, 영국과 GCAP 참여 관련 초기 논의 중



Weekly Keyword

쉽지 않은 군함 수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덴마크 호위함 및 아르헨티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제안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캐나다 잠수함 이후 정치/금융 측면에서 한국 제안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1)

[쉽지 않은 군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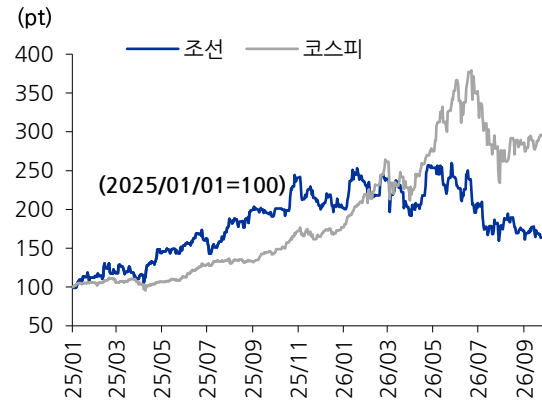
- 한국 조선사는 상선에서 확보한 원가납기·CAPA 경쟁력만으로 군함 시장을 압도하기 어려움. 최근 덴마크 호위함 사업의 사실상 한국 배제,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유럽 2파전, 캐나다 잠수함의 TKMS 선정은 모두 군함 수출이 '배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보다 '누구와 30년간 안보·산업·금융 생태계를 공유할 것인냐'의 경쟁임을 보여주고 있음.
- K-군함의 다음 단계는 가격·납기 경쟁력 + G2G 외교 + 금융 + 현지 생산 + 장기 MRO + 동맹 생태계 편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 이 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동남아·남미에서는 성장하더라도 유럽·북미의 대형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는 계속 마지막 벽을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Key Chart: 주요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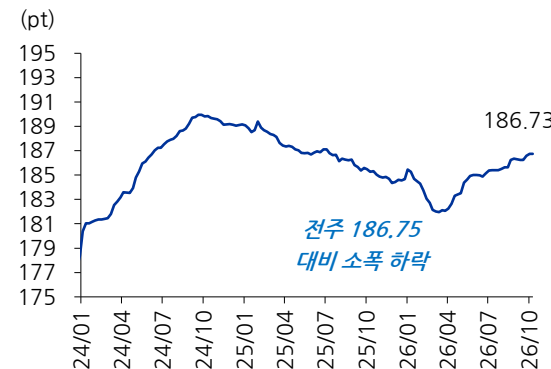
국가/사업	한국 업체	최근 결과/상황	핵심 원안사자점
덴마크 차세대 호위함	HD현대중공업	한국인이 사실상 검토대상에서 배제	비유럽 공급자 진입장벽 확인
아르헨티나 잠수함	HD현대중공업	HDS-1500이 최종 논의대상에서 제외, 프랑스독일 2파전	유럽 업체의 100% 금융 패키지가 강점
캐나다 잠수함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TKMS에 밀림	납기·가격보다 NATO 상호운용성, 동맹관계이 중요
태국 호위함	한화오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존 푸미폰 아둔야뎃금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래퍼런스·후속사업 Lock-in 효과 확인
필리핀 수상함	HD현대중공업	호위함·초계함 등 연속 수주	기존 운용국에서 후속함·MRO·훈련·부품 공급 생태계가 구축되며 진입장벽을 오히려 한국이 보유
미국 MRV/NGLS	한화 필리조선소	미 정부 특수선 해군 지원사업 진입	미국 내 현지 생산거점 확보로 외국 조선사가 아 니라 현지 산업기반 일부로 포지셔닝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er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0/05~10/11)

[상선/해양]

- 韓 조선, 9월 수주량 전월보다 127% 급증
- HD현대중, 1.6조 멕시코 트리온 FPU 건조 막바지
- HD현대중 등, 'SMR 해양 기술 실증센터' 출범
- HD현대마린솔루션, 엔진 MRO 골텐스 지분 인수

[특수선]

- HD현대중, 크로아티아 조선소와 '2.4조 동맹'
- HD현대중, 덴마크 호위함 수주전서 빠지나
- 아르헨, 3조원대 잠수함 3척 도입. 獨佛 금융지원 경쟁
- 인도 강습상륙함, 스페인과 한국이 경쟁

[기타]

- HD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수주전 돌연 백지화
- 한화오션, 중국서 '1,800톤 괴물 크레인' 제작
- 한화오션 하청노조 공공농성 8일째

[글로벌]

- 올해 9개월 동안 LNG 신조선 73척을 발주
- 바르질라, 미국 데이터센터용 282MW 중속엔진 수주
- 日, '원자력잠수함 도입' 안보문서 반영
- 日 해운사, 모잠비크 LNGC 17척 발주 결정 기로
- 카파워쉽, Seatrium에 9번째 FSRU 전환 계약 체결
- 안두릴, 핵잠 부품 생산 위한 신규 조선소 가동 시작
- 中조선, LNG선 1년 새 5배 '저가금융·선건조' 총공세
- 한화 필리조선소, 美 미사일 계측함 1번함 건조
- 美상원의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Weekly Keyword

9월 항공 데이터

국제선 여객은 9월 834만명(+10%yoy), 3분기는 2,636만명(+9%yoy)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10월 여객은 성수기 종료되며 둔화 예상되나, 화물은 연말 성수기 진입으로 호황 지속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1)

[9월 항공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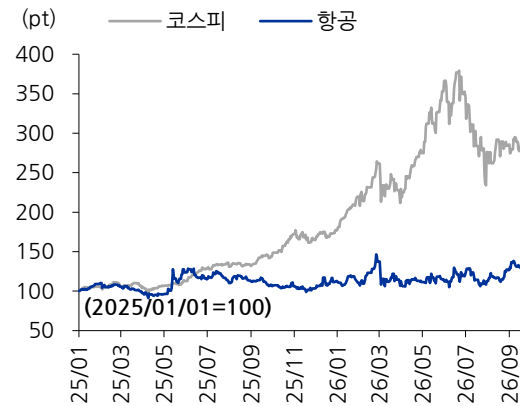
- 9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은 834만명(-11%mom, +10%yoy)으로 견조한 여객 수요 지속. 3분기는 2,636만명(+9%yoy)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일평균 여객 수 기준 일본/중국 노선은 각각 +22%yoy 증가, 미주 노선 +11%yoy 증가를 기록. 중동 항공사 운항 차질 지속되며 인천공항 환승객은 77만명(+42%yoy)을 기록. 화물 물동량은 27만톤(+4%mom, +10%yoy)으로 견조한 흐름 유지.
- 10월 여객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화물은 AI반도체 관련 수요와 연말 성수기 효과로 강세가 지속될 전망.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할증료는 23단계로 상승했으나, 환율 하락이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판단. 대한항공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BUY, 35,000원). 여객·화물 강세로 3Q26 견조한 실적을 기대하며, 12/17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시너지가 본격 반영될 '27년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주목.

Key Chart: BAI 화물 운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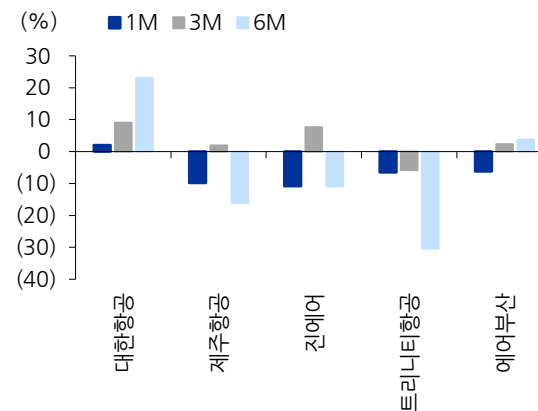


자료: TAC,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0/05~10/11)

[여객/화물]

- 中 황금연휴 '해외여행 붐', 한국 선호 목적지 1위 부상
- 韓 찾는 유커 한달에 83만명, LCC들 中 노선 확충 총력전
- 9월 항공화물 운임, 4분기 성수기 앞두고 소폭 상승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위기 넘겨, 노조 조정신청 취하
- 대한항공,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 항공사·라운지 3위
- 통합 진에어 해외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국내 절차만 남아
- 국내 LCC, 몸집 키우고 고급화 등 체질 개선으로 생존 모색
- 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땀 적극 지원"
- 한진칼 663억 자사주 출연 후폭풍, 조원태 배임 혐의 수사
- 제주항공 중국 주요 도시 취항 기반 확대, 노선 경쟁력 강화
- 제주항공 中 운수권 7개 신규 확보, 국적 LCC 1위 '수상'
- 제주항공, 인천~가고시마·하코다테 노선 주 7회 재운항
- 제주항공, 日 연료 최적화 솔루션 시범 운영
- 트리니티항공, 스카이트랙스 세계 개선 항공사 10위
- 의무운항 끝나는 트리니티항공, 유럽 노선 옥석 가리기

[기타]

- 인천공항공사, 국제여객공항이용료 5천원 인상 검토
- AI 문턱 높은 항공업계, 운항·정비 핵심영역으로 넓힌다

[글로벌]

- 사우디 리야드 공항서 항공기 파손, 항공사들 잇단 운항중단



Weekly Keyword

컨테이너 피크

미서안 컨테이너 물동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운임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 현재 공급제약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운임 하방은 지지될 것으로 판단. 수에즈항로 복귀와 내년 선복 증가는 리스크.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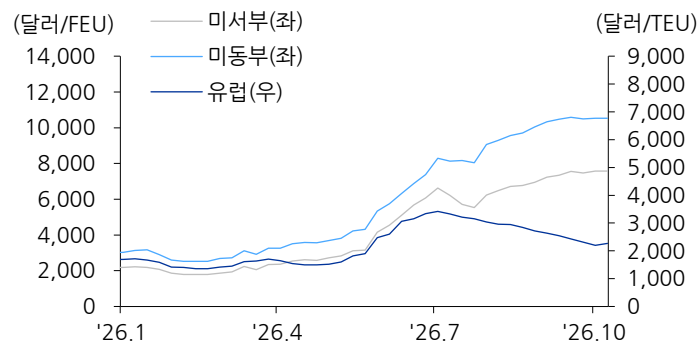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4)

[컨테이너 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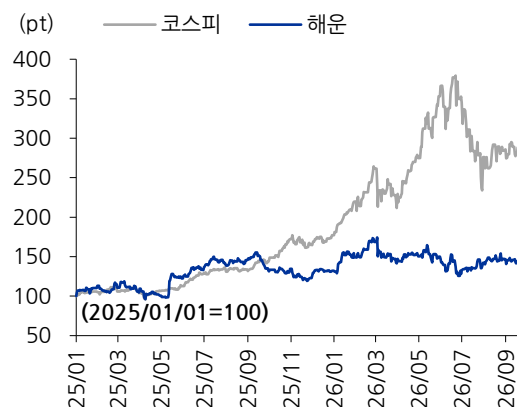
- 9월 미국 LA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104만TEU, 3분기 기준 약 300만 TEU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미국 관세 부담 완화에 따른 재고 확보 수요와 연말 성수기를 앞둔 선적 증가, 파나마운하 운항 제약에 따른 미서안 물동량 유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10/9 주간 기준 SCFI는 3,664pt(+0.05%)로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 미서안은 7,584달러/FEU(+0.1%)로 횡보한 반면, 유럽은 2,274달러/TEU(+3%)로 14주 만에 반등. 견조한 수요와 항만 적체, 홍해 우회 등에 따른 공급 제약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판단. 다만 내년 선복은 약 +9%yoy 증가할 전망, 수에즈항로 복귀에 따른 유효 선복 확대와 운임 하방 압력에 주목.

Key Chart: 주요 항로별 SCF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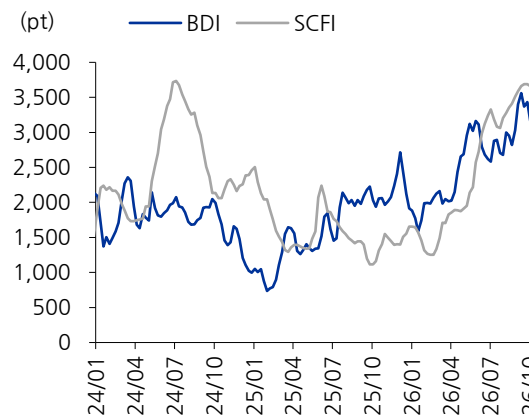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10/05~10/11)

[벌크선]

- 드라이벌크선 발주 2배 급증, 내년까지 순항 전망
- CMB.TECH,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 벌크선 취항
- SM 대한해운, 포스코플로와 720억 장기화물운송계약

[탱커/가스선]

- 500억원 더 내도 간다, 포기 못하는 호르무즈 원유 수송
-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 초기 건조비 2.5배 추산

[컨테이너선]

- 2026년 4~9월 인도 주요 항만 처리 물동량 8% 증가
- 그리스 Contships, 피더선 최대 30척 신조계약
- CMA CGM, 삼성전자 FMC 제소권 기각 요청
- Hapag-Lloyd, ZIM 인수합병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 HMM, 레바논 취약계층 난민 위한 구호물품 해상운송 지원

[기타]

- 위기의 해운업 정책금융 18조로 재건, 해양강국 향해 출항
- 국회예산정책처, "산은, HMM 지분매각 서둘러야"
- 현대글로벌비스, SMR 추진 자동차운반선 한미항로 운항 검토
- MSC 자회사 GCC, 자동차운반선 8척 추가 발주
- 日, 최초로 러시아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 35척 제재
- UAE, 10월부터 선적항 출항 전 정보 제출 의무화
- IUMI, 세계 선대 노후화 진전 보험청구 증가 우려
- FEPORT, EU ETS로 환적물량 비 EU 항만에 집중
- 사우디 공항정유시설에 후티 공습, 韓기업 인근 지역 피격